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09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8년 6월 1일
- 라. 회부일자 : 2018년 6월 11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립대학교에 총장 직속의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학내 성평등 및 인권보호 기구·제도 강화를 통해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문화를 증진하고, 권익침해 시 신속하고 중립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시립대학교에 총장직속의 인권센터 설립(안 제7조의2 신설)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학내 성평등 및 인권보호 기구 및 제도 강화를 통해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문화를 증진하고,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전담기구로 인권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인권센터 설립 배경

-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미투(Me too) 운동¹⁾을 포함해 기존의 젠더 인식과 성(性)관념에 대한 중요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는 이와 같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학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실제 시립대에서는 성폭행, 성추행 사건을 포함해 지난 2013년 이후 30건이 넘는 각종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벌이나 비인격적인 발언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1) 2017년 10월 미국 영화계 거장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등에 해시태그를 다는 행동에서 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직검사, 유명 작가와 배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고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시립대학교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5현재
건수(건)	1	-	8	12	12	3

- 더욱이 최근에는 학교주변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사건에 학내 구성원들이 쌍방으로 관련되는 등 학생들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교원들의 각종 비위로 인한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도 우려됨.
- 또한, 매년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이들에 대한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학생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 분류 학생 수>

년 도	2015	2016	2017
인원(명)	169	199	194

- 현재 시립대는 각종 성폭력 문제의 해결과 예방 등을 위해 학생상담센터와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학생부처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학생상담센터의 경우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과 자살예방,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와 상담,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²⁾ 등의 한계를 보임.

- 이 밖에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업무처리 감독과 각종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인권보호 및 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인권옴부즈만³⁾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임.
- 조직이나 예산부족 문제외에도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의 참여율도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성희롱 예방 및 인권교육 현황>

구 분	교 수			직 원			학 생		
	'15	'16	'17	'15	'16	'17	'15	'16	'17
참 여 율 (성희롱, 성폭력)	42%	65%	70%	69%	77%	82%	16%	16%	16%
참 여 율 (인권)	비대상			64%	70%	73%	비대상		

다. 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안 제7조의2 신설)

- 시립대는 안 제7조의2 신설을 통해 현재 학생처 산하의 학생 상담센터를 총장 직속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임.

2) 현재 학생부처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팀장1명, 교육전문 1명, 조교1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중임.
 3) 올해 1월부터 1명의 비상임 인권옴부즈만(법조인)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음.

- 시립대는 총장 직속의 인권센터를 심리상담실, 인권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의 4개실에 모두 9명의 인력을 배치해 성폭력 및 각종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할 계획임.

<인권센터 개편(안)>



- 시립대는 신설되는 인권센터가 각종 성폭력 문제와 인권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학교측의 적극적인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총장 직속으로 설치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기존의 학생상담센터 인력외에 증원예정인 4명의 인력을 인권 및 양성평등 분야의 전문가로 채용해 조직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임.
- 이와 별도로 기존의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를 (가칭)인권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인권보호 및 성폭력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각종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인권침해·성폭력·성희롱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임.

- 인권센터의 설치는 급변하는 사회상황 변화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학내 각종 성폭력 및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시립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동시에 각종 사건·사고의 처리와 예방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전담 조직의 신설이 교내 성평등이나 인권보호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고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시립대의 성평등 및 인권보호를 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 신설과 같은 외형적인 변화외에 인권교육 참여율 제고, 피해자 친화적인 신고과정의 개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심리상담 대상 확대를 통한 예방시스템 강화 등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전문가 신규 채용을 포함한 전문성 강화 대책과 함께 센터장의 외부 영입을 포함해 인권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